

차세대 AI·XR로 재도약... “강화된 기술력으로 시장 승부”

삼성전자, 새해 미국서 언팩
갤S25, 고도화된 AI로 혁신 예고
전작대비 얇아지고 무선 충전 강화
구글·퀄컴 협력 XR 헤드셋 공개
XR 글라스 대신 헤드셋 출시 반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서 개최된 하반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실적 악화에 빠진 삼성이 내년 1월 언팩을 앞당겨 열고 위기를 극복할 야심작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한층 강화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하는 한편 삼성 최초의 확장현실(XR) 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갤럭시 S25시리즈는 고도화된 음성비서 ‘빅스비’가 탑재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두께도 전작보다 얇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앞서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해온 XR 헤드셋의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XR 관련 조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의 ‘비전프로’와 달리 편의성을 한층 높여 XR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5시리즈를 공개한다. 이번 S25시리즈 라인업은 기존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에서 ‘슬림’을 추가해 4가지 라인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갤럭시 S22 울트라 이후 3년 만에 버건디 색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IT 팁스터(정보 유출자)들을 통해 알려진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블루,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실버, 티타늄 버건디 등이다.

◆고도화된 AI 기능 및 차세대 무선 충전기 탑재

이번 언팩은 그간 2월에 열려왔던 일정을 앞당겨 1월로 진행된다. 이는 AI 스마트폰을 빠르게 선보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니엘 아라우호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S25시리즈는 갤럭시 AI 경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해 실사용 중심의 일상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갤럭시 S25 울트라는 고도화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16GB 램이 탑재될 전망이다. 폰아레나와 샘바일 등 해외 IT매체에 따르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램·256GB ▲16GB 램·512GB ▲

16GB 램·1TB 등 3가지 옵션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GB 램을 탑재는 갤럭시 S21 울트라 이후 4년만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고성능 모델의 경우 12GB 램, 일반 모델은 8GB로 유지해왔다.

앞서 애플도 최근 출시한 아이폰 16시리즈에서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위해 램 용량을 8GB로 늘렸다. 이에 램 용량의 확대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한층 더 고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갤럭시 S25시리즈에는 음성비서 ‘빅스비’ 기능도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빅스비에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되며 한층 강화된 자연어 처리(NLP) 능력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갤럭시 S25시리즈는 아이폰의 무선 충전 기능인 ‘맥세이프’와 같은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무한 등 XR 기기 최초 공개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첫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Moohan)’ 등 자체 XR 기기를 선보일 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갤럭시 언팩에서 막바지에 갤럭시링의 티저 이미지를 선보인 만큼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인 XR 기기는 일반 안경과 비슷한 모습의 AR 글라스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고글 모양과 비슷한 XR 헤드셋이 공개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락(XR Unlocked)’ 행사를 개최하며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XR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XR(eXtended Reality)은 사용자가 시각, 청각, 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제한을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로젝트 무한은 기기에서 나오는 스크린 공간에 가상 콘텐츠와 앱이 배치돼 이용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니AI 등과 대화하면서 현재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홍범식 LGU+ 사장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석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입니다”

LG유플러스는 홍범식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홍범식 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뤘고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이 기업들에게는 ▲익시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 지원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된다. /구남영 기자

금호석화그룹, 안전·환경 강화로 지속가능 경영 선도

ESG 경영 핵심은 ‘안전·환경’
첨단 기술로 고위험 요소 관리



금호석유화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공통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그룹이 환경과 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계열사별 안전 및 환경 관련 통합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그룹 차원의 ‘안전’과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이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

황을 공유하며 공통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환경 관리 시설 투자로 사업장 내 악취유발 물질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 여수 1공장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발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습식세정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수 1, 2공장 플레어 스택에 배출가스의 불안전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2공장 증설과정에서 원부재료 리사이클 공정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 폐수 리사이클 공정의 완공에 따라 폐수내 유기물질을 회수 및 추출하여 제품 생산의 원료로 재활

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폐수내 수질 오염물질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폴리캠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및 악취 발생 개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 배출원 관리 시스템(LDAR)을 구축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와 울산 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기반 안전환경 시스템을 강화 중이다. 사업장별 작업 현장과 고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보안카메라인 AICCTV를 설치해 화재, 가스 누출 및 작업자 이상행동 감지 또는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SK브로드밴드 ‘키즈 콘텐츠’ 제작

SK브로드밴드는 15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B tv ZEM 챔어워즈’ 프로모션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즈 서비스 B tv ZEM이 선정한 ‘2024 TOP 50’ 인기작을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키즈 전용 놀이펜이자,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지원하는 리모컨 ‘챔펜’을 증정한다.

특히 ‘살아있는 영어’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유아용 푸쉬카, 가습기, 삼풍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살아있는 영어’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맞춤형 영어대화 서비스로, 영어 발화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주는 AI 드로잉 기능과 한국어와 영어 혼용 음성인식 엔진을 업계 최초로 적용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배달의민족, ‘참여형 나눔’으로 가치 더한다

지속가능 사회공헌의 새 기준
“고객과 파트너의 공감 속으로”



엽서를 쓰고 있는 산타라이더. /우아한형제

산타 복장을 한 라이더가 손편지를 전달하고, 매장 대신 이동식 ‘밥차’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사장님이 등장하는 등 외형상 평소 업무와는 다른 형태의 나눔활동을 벌이는 플랫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 서비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수년간 사장님, 라이더, 고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

헌’ 활동을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사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우아한팍방울’을 비롯해 배민 플랫폼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장님, 라이더, 고객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배민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파트너 및 이용자와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아한팍방울은 원래 우아한형제들 임직원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는 사장님과 라이더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같은 해 추석에는 배민 임직원 및 배민프렌즈(사장님 커뮤니티) 2기

멤버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떡만둣국 밀키트 제작에 동참하며 메뉴 선정, 조리, 배달 전 과정을 직접 이끌었다.

라이더 참여도 활발하다. 2021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배민 라이더들이 산타 복장으로 변신, 직접 쓴 손편지와 케이크·빵·화용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아동복지기관 어린이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산타 라이더’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5월 임직원, 사장님, 라이더가 모두 참여한 우아한팍방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서현 기자 seoh@